

## 인도네시아, 파리클럽 외채 상환기간 연장 결정

### □ 54억 달러의 상환 기간 연장

- 4월 11~12일, 파리에서 있었던 파리클럽 채권단의 협상에서 2003년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75억 달러의 외채 중 54억 달러의 상환 기간을 연장기로 합의
- 원리금 상환 부담이 적은 ODA 차관은 10년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20년, 非ODA 차관은 5년 거치기간을 포함 18년으로 상환 기간을 리스케줄링 하였음.

### □ 상환 기간 연장 결정의 배경

- 인도네시아 정부의 경제개혁 의지를 높게 평가
  - 재정 적자 축소를 위한 유류 보조금 삭감과 공공요금의 요금 인상 및 국유 자산의 매각
    - 금년 초 유류(22%), 전기요금(6%) 및 전화요금(15%) 등의 인상
    - 금년 3월 14일, 인도네시아의 최대 상업은행인 BCA(Bank of Asia) 의 정부 소유지분 51%를 약 5억 4천만 달러에 매각
- 세계 최대 무슬림 국가의 정치·경제적 안정을 원하는 외국 정부들의 입장 반영

## □ 향후 전망

- 외채 상환 유예 조치로 정부 재정 적자 완화와 차관 상환 부담의 해소
  
- 과도한 외채 부담 여전
  - 상환 기간 연장에도 불구하고 총 외채가 1,400억 달러에 이르는 인도네시아 정부에 있어서 이자 비용만 올해 예산의 40%에 달함
  - 이에 따라 인프라 구축 및 빈곤·실업자 문제 등 국가 당면 과제에 대한 예산 집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